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잠언 31:10-13, 19-20, 30-31 제2독서 테살1서 5:1-6 복음 마태오 25:14-30

◎말씀 <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 >

뉴질랜드에 ‘키위’ 라는 날개 없는 새가 있었습니다.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살면서 날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다보니 세월이 가면서 날개가 퇴화하였다고 합니다. 몸집에 비대해지면서 성장하면 닭 정도의 크기가 되는 데 날지 못하니 결국 먹잇감이 되었고, 이제는 객체 수가 줄어들어 동물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없어 퇴화하는 것, 우리 몸과 마음도 비슷하리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탈렌트의 비유’ 입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종과 두 탈렌트를 받은 종은 각각 그것을 값지게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 혹은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받은 탈렌트를 활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밝힙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종과 두 탈렌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값지게 활용하였다고 주인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불행을 당합니다.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하지만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재산과 종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기 재산을 늘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바랐던 것은 종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을 잘 활용하기를, 종들과 다른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실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지게 활용한 종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받은 것을 처리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받았던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가지고 나와 모든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낌 없이 활용함으로써 나와 세상 모든 이를 위한 선익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며, 또한 나 자신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삶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복된 하느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세상의 재화와 자연 환경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지? 몸과 마음이 퇴화하여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묵상해 봅시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 17일(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교 무 금 주일헌금	\$ 1,790.00 \$ 751.00
11월 18일(수)	연중 제33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260.00 \$ 85.00
11월 19일(목)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합동위령미사	\$ 185.00 \$ 450.00
11월 20일(금)	연중 제33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340.00
11월 21일(토)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합 계	\$ 3,861.00
11월 22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1명 성인: 85명
교무금 봉헌자	김중순(11-12월)유지석(10-12월)김양순(9-12월)최재진(10-11월)전우성(10월)윤재경, 우순이 박원상. 이재덕. 허형. 남필레. 김영숙(11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삼종기도 (Angelus)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루카 1,38 참조) 해 질 무렵 일손을 멈추고 겸손하게 저녁기도를 바치는 농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밀레의 그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선 ‘만종(晩鐘)’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제목은 ‘삼종기도(Angelus)’입니다. 삼종(三鐘)은 종을 세 번 친다는 말입니다. 삼종기도는 하루 3번 일과를 멈추고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밀레 그림의 장면은 해가 저무는(晩: 저물 만) 그 시간에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삼종기도를 ‘Angelus(안젤루스, ‘천사’)’ 라고 하는 것은 삼종기도의 라틴어 기도문이 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Angelus Domini nuntiavit Mariae, Et concepit de Spiritu Santo.”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루카 1,28 참조)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드러냅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루카 1,38 참조)

마리아의 신앙고백인 이 피앗(Fiat: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형)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요한 1,14 참조) 비로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종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 준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루카 1,26-37)를 기념하기 위하여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모송을 바칩니다. 삼종기도는 해돋을 무렵(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정오(잠시 쉬는 점심) 그리고 해 질 무렵(하루 일을 바치는 저녁)에 바칩니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강생(降生)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리 2,7)

▷▷ 부활시기 동안에는 부활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벳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간 장 종 지	◎소원성취◎	
	안 보이는 하느님은 사랑하기 갑갑하고 재수없는 저 얼굴은 사랑하기 끔찍하네. 하느님 매일 만나고 저 화상 멀리 사라지기 바라고. 빌고. 꿈꾸었더니 매일 보는 저 사람 속에 하느님이 깃드셨네. 쉽고도 어려운 길. 하느님 만나는 길.	조창환 토마스 데 아퀴노.시인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1. 주일 야외미사 안내
일시: 15일(일)오전10시 장소:정자(놀이터)
최근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교구방역지침에 따라 이번주부터 교중미사가 야외미사로 집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꾸르실리스따 온라인 교육 참가 안내
목적:코비드19 펜데믹으로 영적어려움을 겪고있는 꾸르실리스따들을 위한 영적 재충전
기간:12월3일~5일, 저녁7시~10시
지도신부님:김현국요한사도(트라이벨리신부)
장소:Zoom을 이용한 OnLine Program
주관:북미주 서중부 꾸르실료 사무국
참가비:\$10 문의:이상인.시메온 간사
본당 꾸르실리스따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3. 후보광고(2021년) 신청하세요
금액:\$150/1년 (외부:\$200/1년) 신청:사무실
4. 매일미사(2021년) 신청하세요
금액:\$50/1년 신청:사무실
5. 마스크 필요하신분 요청하세요(사무실)
(어린이용 KN95 마스크)
6.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김상돈가정(\$100)지살로메(\$100)
김양순(\$100)허형.허순태(\$40)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행 복 하 여 라 주 님 을 경 외 하 는 모 든 사 람

전례봉사	연중제33주일(11월15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2)	대림제1주일(11월29일)	대림제2주일(12월6일)
복사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